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



강성규

대한산업보건협회 부회장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는 1984년부터 시작됐다. 전언에 의하면 한국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주관하여 1979년 10월에 아시아산업보건대회(ACOH)를 개최하고 1982년에는 인도 대회에 참가했다. 인도 대회에서 한·일이 서로 교류하기로 약속하고 1984년에 한국의 서울에서 제1차 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한 해는 한국에서, 다음 해는 일본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했으나 아시아산업보건학회(ACOH)가 있는 해(1991년, 1994년, 1997년)나 국제산업보건학회(ICOH)가 있는 해(2000년)는 건너뛰기도 했다. 또는 ACOH(후쿠오카, 2014년)와 ICOH(서울, 2015년)가 열릴 때 공동개최하기도 했다. 2020년 대구 대회도 ACOH와 공동 개최로 기획됐다.

한국과 일본이 격년으로 대회를 개최하던 중 중국이 참여하게 됐다. 2001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후부터 한일중이 돌아가며 개최하면서 한일중 학술대회로 확장되었다. 대회 명칭은 주관국가와 차기 주관국가 순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2021년에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것처럼 전염병으로 중단된 해(2000년 대구, 2001년 기타규슈)도 있다. 2003년 오키나와 대회는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13년 청두 대회는 조류독감과 지진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의 초대 한국 측 대표는 조규상 회장이었는데, 이후 이승한, 윤임중 회장 등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 한국 측 대표를 맡아오고 있다. 현재는 백헌기 회장이 한국 측 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은 교토공장보건회장이었던 사이토 하지메 선생이 초대 대표를 맡았다. 이후 중재방의 다치 마사토모 회장과 일본산업의과대학(UOEH) 오쿠보 총장과 히가시 총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측 초대 대표는 허평심 직업위생및중독통제소(NIOH-PC, 산업보건연구소)장이 맡은 이후 오랫동안 북경대학의 왕칭 교수가 담당했고 현재는 중국의 직업안전건강협회(COSHA, 산업보건협회) 마준 회장이 맡고 있다. 각국에서는 간사를 지정하여 학술대회에 관련된 것을 조정해 오고 있다. 한국은 가톨릭대학교의 이세훈 교수, 이강숙 교수를 거쳐 현재는 구정완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학술대회의 주요 사항은 각국 대표와 간사 그리고 관련자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일중 간의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학술대회의 주요 사항은 각국 대표와 간사 그리고 관련자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일중 간의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2003년에 브라질 이과수에서 개최된 ICOH에서 2009년 대회 장소 결정 투표가 있었다. 서울, 후쿠오카, 케이프타운이 경쟁을 했는데, 한·일로 투표가 갈라지는 바람에 케이프타운이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ICOH 대회 유치는



한일중이 협력하기로 하고 2007년 중국 시저우(蘇州) 대회에서 한국의 유치를 지원하기로 하여 실제 2009년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일본 측 참가자들이 한국인보다 더 열심히 한국 유치를 홍보하기도 했다.

한일중 산업보건학술대회는 주로 5월에 열렸는데, 국내에서 개최될 때는 협회의 중요한 행사로 치러졌고 고용노동부 차관이나 산업안전국장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사를 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개최될 때는 협회 각 지부에서 선발된 직원이 참여하여 발표도 하고 대회 개최 도시 주변의 문화탐방도 실시했다. 조규상 명예회장이 계실 때까지 협회와 가톨릭대학교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성장하는데 각 대학의 예방의학교실이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2010년 이전까지 협회와 대학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에는 협회 직원 외에 가톨릭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 대학의 교수나 전공의와 산업보건 대학원생들이 참가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와 대학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대학의 교수나 전공의, 대학원생들의 참여도 뜸해졌다. 협회 직원은 협회의 공식 출장으로 가는 반면 전공의나 산업보건 대학원생은 경비 마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반 참가자가 중년의 대학 교수 위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일본은 젊은 대학원생이 많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궁금했다. 일본의 대표인 오쿠보 총장에 물어보니 일본은 젊은 대학원생에게 참가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 초창기에는 산재기금을 이용했고, 몇 년 전에는 원자력안전기금을 이용하여 참가자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 중국은 산업보건의 공공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개인이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지역의 보건부가 후원하여 참가경비를 마련했고, 마준 회장이 대표를 맡은 이후에는 중국산업보건협회에서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공익 법인이고, 협회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 운영 등을 고려해 볼 때 젊은 산업보건 전공의나 대학원생에 대해 참가 경비지원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협회 직원도 단순 참가보다는 자신이 수행한 사업을 조사하고 분석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일정한 산업보건학술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해 학문 교류를 증대시키면 좋겠다.

가톨릭대학교의 구정완 교수가 간사를 맡은 이후에는 주요 대학의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일정한 산업보건학술대회 참석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일반 참가자가 증가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협회 본부는 매년 발표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데, 협회 직원도 단순 참가보다는 자신이 수행한 사업을 조사하고 분석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일정한 산업보건학술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해 학문 교류를 증대시키면 좋겠다. 한일중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 산업보건제도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협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필자가 처음 한·일 학술집담회에 참가한 것은 산업보건연구원에 재직하던 1992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경주 대회였다. 1992년 원진레이온 사건으로 직업병 예방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이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보건연구원이 설립된 해였다. 협회를 중심으로 산업보건연구원 및 국내 대학에서 190여 명이 참가했고, 일본에서 40명, 중국에서 8명이 참가하여 250명이 참가했다. 직업환경의학회와 산업위생학회는 각각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설립되었는데 국내 학회보다도 참가자가 많은 산업보건 국제대회였다. 한국의 전문가는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하여 기초적인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한 반면, 일본은 사업장의 산업보건인들이 많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발표하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처음 참가할 당시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터라 교토대학의 이케다 마사유키 교수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젊은 초보 연구자의 영성한 질문에 대해서도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던 기억이 난다.

한일중이 현재 정치 사회적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가까운 이웃 국가이고 문화적으로 유사하므로
서로 배울 것도 많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 참가 후 일본 대회는 참가하지 못하고 1995년 대전 유성에서 개최된 한·일 학술집담회에 참가했다. 그 당시 일본 산업위생학회(산업보건학회)는 일본어로 발간되는 학술지(산업위생학회지)를 근간으로 하여,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라는 명칭에 영문으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업의학회지(직업환경





의학회지)는 1988년에 창간하여 연 2회 정도 내는 수준이었고 영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당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천에 소재하던 산업보건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의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하나'라고 질문하여, '영문학술논문으로 평가받는다'고 대답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호기 있게 대답했지만, 실제 영문학술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시절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필자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 근무하게 되어 한동안 한·일 학술집담회는 잇고 있었다. 필자가 안전보건공단에 있을 때 국내 대회는 참석이 가능했지만 일본이나 중국 학회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참가하지 못했다. 2007년 중국 시저우 대회 때 안전보건공단의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한국의 전리방사선에 의한 건강영향'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당시 삼국 모두 원자력 안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기억이 있다.

2016년에 가천대학교로 옮긴 후에는 한일중 학회는 매년 참석하고 전공의들도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일중이 현재 정치 사회적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가까운 이웃 국가이고 문화적으로 유사하므로 서로 배울 것도 많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1년 스웨덴 노동생활연구소에서 단기 연수를 하던 시절, 과거 철천지원수 같았던 북유럽 4개 국가가 현재는 사회문화적으로는 거의 한 나라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 이 글을 읽고 2023년 4월에 진시황의 유적이 있는 역사적인 도시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리는 중한일 산업보건학술대회에 많은 한국 참가자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